

저출산·고령화, 돌봄확대로 넘는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돌봄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복지 정책의 한 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국민들도 올해 더 증진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아이돌봄(15.8%)과 노인소득·돌봄(11.1%) 등을 세번째로 다섯번째로 꼽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할 1명 미만 국가가 된 한국은 삶의 만족도 또한 60.3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첫 해(1~3월분 4월 소급지급)다. 나이가 9월부터 대상이 6세(7세 미만)까지로 확대돼 27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양육비 지원 체계도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아동양육 정책 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을 검토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도 21~42%에서 5~20%로 낮추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의무화해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2022년까지 1800개소까지 추가 확충한다.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출생단계부터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다음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한다.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간담회 등을 거쳐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8%는 노인이다. 여기에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세대로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점차

복지부 2019 업무계획...아동수당·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장애등급제 서비스 수요 따라·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의 노후는 크게 '국민연금'과 '일자리' 등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시노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축·주거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 사업과 출산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매년 5개소)·치매전담형 요양시설(올해 69개소 등 2022년까지 344개소)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복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24만 명에서 29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이혼시점으로

앞당기고 최저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스튜어디스코드 행사로 합리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에서 61만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양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자리 중 일부를 급여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한다. 시니어 취업컨설턴트도 38명에서 180명까지 늘려 민간 일자리를 발굴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매년 5개소)·치매전담형 요양시설(올해 69개소 등 2022년까지 344개소)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복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24만 명에서 29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인 상태·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제기급여 본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하고 5월부터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통한 스마트 협진, 이동지원 시범사업에 나선다.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신 감면·합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키로 했다.

올해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부문은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간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만7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위 30%→50%)하고 방과후 돌봄도 40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6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뉴스시



너도, 나도 미세먼지 마스크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법무부, 마약범죄자 6개월간 집중 관리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에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기존에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4배 이상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 등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북극 먹고 마비 등 휴일 섬마을 사고 잇따라

휴일 섬마을에서 북어를 먹고 마비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바다에 빠진 선장이 해경과 민간어선 등에 구조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57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A(39) 씨가 자신의 집에서 북극을 먹고 허와 입천장 마비 증상을 보였다. A 씨를 진료한 삼산보건지소 공중보건과는 북어 독이 의심된다고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고흥군 나로도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A씨를 인계했다. 고흥의 한 병원에서 A 씨는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큰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귀가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0시 56분께 광양시 금호동 관리부두 앞 해상에서 연안 북방어선 M 호(0.94t·승선원 1명) 선장 B(58) 씨가 입항 중 부표에 충돌한 뒤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인 다운 호(1.13t) 선장 진 모(33) 씨가 B씨를 발견하고 구조까지 해 해경에 인계했다. B 씨는 광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나타났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만취해 흥기 휘두른 태국인 불법체류자 입건

영양경찰서는 11일 술집에서 시비 끝에 흥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태국인 A(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영양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태국인 B(24) 씨·C(27)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일부가 찢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흥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술집에서 만난 B·C씨와 함께 춤을 추다가 승강기를 밟았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C씨에 대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근 조선소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날 우연히 만나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10월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며, C씨도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C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영양=조대호 기자

'의사 행세' 진료실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

의사 행세를 하며 전국 대학병원을 다니며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병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부 용봉동 치과병원 3층 진료실에 들어가 이모(31·여)씨의 카메라와 렌즈 등 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전후 7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복장을 갖추고 병원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청소를 위해 진료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료실에 보관돼 있던 카메라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복도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경찰은 김씨가 훔친 피해품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김씨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2대를 해지한 점, 또 도주를 하던 중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을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물건을 서울에서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